

■ 평가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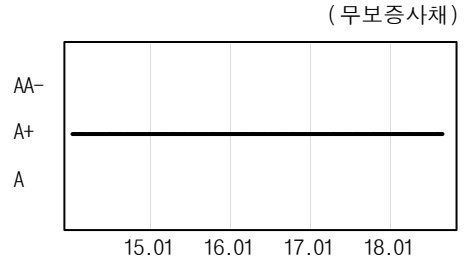
이승구 수석연구원
02-368-5316
sglee@korearatings.com

김병균 평가4실
평가전문위원
02-368-5327
bgkim@korearatings.com

■ 평가 개요

제20-1회 외 무보증사채	A+/안정적
평가종류	본평가
후순위사채	NR
기업어음	A1

■ 등급 추이



■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배, %)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6)
매출액	40,310	35,127	30,756	35,484	19,820
EBIT(영업이익)	1,018	1,159	812	1,113	612
EBITDA	1,729	1,847	1,489	1,781	944
총자산	30,810	28,561	27,208	29,870	32,816
총차입금	13,111	12,068	9,667	11,259	11,773
순차입금	10,348	8,960	7,199	8,499	9,370
EBIT/매출액(영업이익률)	2.5	3.3	2.6	3.1	3.1
EBITDAmargin	4.3	5.3	4.8	5.0	4.8
EBITDA/금융비용	3.3	4.8	4.0	4.3	4.1
순차입금/EBITDA	6.0	4.9	4.8	4.8	5.0
부채비율	406.3	329.1	275.1	260.8	259.8
차입금의존도	42.6	42.3	35.5	37.7	35.9
적용재무제표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주 1. K-IFRS기반 표준재무지표로 조정 재구성한 수치임
2. EBITDA = EBIT(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평정요지

한국기업평가는 LS 전선(주)(이하 '동사')의 제 20-1 회, 20-2 회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한다. 주요 평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 수위의 내수시장지위, 다각화된 제품포트폴리오 등에 기반한 우수한 사업안정성
- 수익창출능력 안정적인 흐름 지속
-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차입금 증가하였으나 재무안정성 유지
- 견조한 수익창출능력 기반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 그룹계열사와의 수직계열화 구축

상기 신용등급은 자체신용도와 동일하다.

▶ 회사 개요

동사는 2008년 7월 舊LS전선(주)가 순수지주회사인 (주)LS(존속회사), 신설회사인 동사 및 LS엠트론(주)로 물적분할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5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종합전선업체로, 전력선 및 통신선, 전선소재 등의 생산·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평정논거(Key Rating Rationale)**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과점화된 국내 전선시장에서 수위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해 해저케이블, 고압직류송전 케이블 등으로 제품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제품의 성숙기 진입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미얀마, 폴란드 등 해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초고압전력선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본사와의 상호보완적 제품믹스를 구축하여 사업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수익창출능력은 안정적이며,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재무안정성은 유지되었다.

우수한 사업기반과 제품포트폴리오 개선을 바탕으로 원재료가격 변동분을 제품가격에 적절히 반영하면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력선 판매가 부진하면서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회복되는 모습이다. 원자재 및 제품평가 상승으로 전력선 부문의 채산성이 개선되었고 통신선 또한 경쟁이 심한 중국보다는 타지역의 고객을 개척하여 수익을 제고하였기 때문이다.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 6월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259.8%, 차입금의존도 35.9%로 레버리지 부담 정도는 2016년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견조한 수익창출능력에 기반하여 재무안정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평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이 2017년 이후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나, 견조한 수익창출능력을 감안하면 재무안정성은 큰 변동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계열사와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

관계사이자 국내 유일의 전기동 제련업체인 LS 니코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조달하여 전선 기초소재를 생산한 후, 자체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계열 동종업체 등에 공급하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선사업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생산효율성 및 판매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등급전망 - 안정적(Stable)**

이는 견조한 수익창출 및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동사는 사업안정성은 우수하나,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재무부담도 다소 과중한 수준이다. 영업실적 및 현금창출력 개선·약화 정도와 이를 통한 재무레버리지 변화 등이 모니터링 요소이다.

▶ **등급변동요인**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고부가제품 확대 등 제품포트폴리오의 개선과 차입규모의 지속적인 축소 등으로
- EBITDA마진 8% 이상, 차입금의존도 30% 이하 유지

반면, 아래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실적 약화 또는 자금소요 확대 등으로 차입금의존도 45% 초과 상태 지속

연결기준	연도별			3개년 평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EBITDA마진(%)	5.3	4.8	5.0	5.1	4.8	5.0
차입금의존도(%)	42.3	35.5	37.7	43.9	40.2	38.5

■ 주요 평정요인(Key Rating Factors)

▷ 사업 요인

우수한 시장지위 및 다각화된 제품포트폴리오 보유

저부가가치 전선제품의 투자 및 기술 진입장벽은 낮지만, 고부가 전선제품의 경우 대규모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다. 기업실적에서 ‘규모의 경제’ 시현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선산업의 시장구조는 대형업체 위주의 과점형태를 취하게 된다. 국내시장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제품인 초고압전력선(일반적으로 154kV 또는 200kV 이상 제품을 의미)을 생산하는 동사,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등 상위 4 개사가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선박·차량용 전선 등 특화된 제품이나 저부가가치 제품인 중저압 범용전력선을 생산하는 다수의 중견·중소업체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초고압전력선이 기술·자본관점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중저압전력선은 저성장·저마진의 성숙기에 진입하여 신규 진입 매력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장구조가 향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동사는 대형업체 중에서 매출 규모에서 다른 3 사 대비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Prysmian, Nexans, ABB 등 세계 우수 전선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과점해 온 해저케이블시장에 국내업체 중 유일하게 진입하였고, 국내 최초로 고압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케이블을 국산화하고 세계 최초로 직류 초전도케이블 실증에 성공(2015 년)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해 국내 전선업계 최고수준의 제품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시장 1 위업체로서의 지위 및 사업안정성은 확고하다.

해외생산기반 확보를 통해 생산효율성 및 글로벌 시장 대응력 제고

동사는 저마진 구조의 전선산업에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0 년대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미얀마, 폴란드 등에서 해외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본사의 경우 초고압전력선 및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제품을 중심으로 매출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법인의 경우 본사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고압 및 중저압 제품군을 중심으로 본사의 제품포트폴리오를 보완하면서 현지시장 및 글로벌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창출능력 유지

2012 년 이후 2016 년까지 동사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판매량이 정체된 가운데, 2011 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전기동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제품판매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2016 년에는 초고압전력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력선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매출비중이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판가하락 외에 주 수출처인 중동지역에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확대로 투자가 축소되고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7 년 이후에는 매출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 년에는 원자재 전기동 가격 상승에 연계된 판가 상승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고부가제품인 전력선보다는 범용의 저부가제품인 전선(중저압전력선)과 전선소재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전력선의 경우 장기 프로젝트의 성격이 짙어 세계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주는 증가했으나 실제 매출 발생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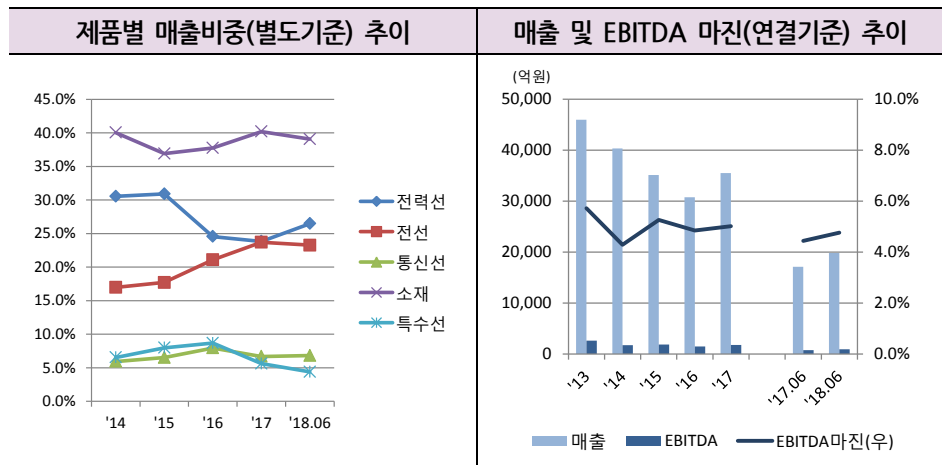
2018년 상반기에도 반등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기동 가격 상승, 수주증가 등이 매출증가의 주요인이며, 이외에 전년 1분기 중 한국전력 입찰제한으로 초고압선 매출이 부진하였던 점의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였다.

영업수익성은 초고압선을 제외한 저부가제품들이 전체 매출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원재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특성 또한 낮은 수익성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국내외에서 교체(국내 및 선진국) 및 신규(개발도상국)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우수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원재료가격 변동분을 제품가격에 적절히 반영하면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주 수출처 중동지역 투자 위축 등으로 전력선 판매가 부진하면서 저하되었으나, 2017년에는 회복되는 모습이다. 원자재 및 제품판매가 상승으로 전력선 부문의 채산성이 개선되었고 통신선 또한 경쟁이 심한 중국보다는 타지역의 고객을 개척하여 수익을 제고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EBITDA 창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실적 회복 기조가 이어졌다.



자료: 동사 제시, 연결감사보고서

▶ 재무 요인

2017년 이후 운전자본 부담 확대

우수한 사업지위를 바탕으로 LS 아이앤디 분할 이후인 2014년부터 연결기준으로 연간 1,000 억원 대 중후반 수준의 EBITDA 를 창출하는 등 양호한 영업현금창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주요 영업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원, 배)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6)
EBITDA	1,729	1,847	1,489	1,781	944
금융비용	521	385	370	410	229
운전자본투자	884	-275	-500	2,172	848
자본적지출	270	545	362	734	582
잉여현금흐름	-167	1,231	1,148	-1,737	-1,054
EBITDA/금융비용	3.3	4.8	4.0	4.3	4.1
EBITDA/자본적지출	6.4	3.4	4.1	2.4	1.6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2016년까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완화되고, 차입규모 축소로 금융비용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 해저케이블 확장투자가 일단락되면서 투자부담이 축소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기조가 유지되었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외형 확대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잉여현금흐름도 적자로 전환되었다.

운전자본 부담으로 차입금 증가하였으나 재무안정성은 유지

과거 2008년 미국 전선업체 SPSX를 인수하면서 저하되었던 동사의 재무구조는 이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잉여현금흐름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말 SPSX가 포함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LS아이앤디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약 6,100억원의 차입금이 이관되었고, 2014년 1,55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2015년 자회사 LS전선아시아 Pre-IPO(520억원), 2016년 LS전선아시아 IPO(본사 구주매출 541억원, LS아시아 신주발행 39억원)를 실시하여 현금을 조달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 6월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259.8%, 차입금의존도 35.9%로 레버리지 부담 정도는 2016년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입금 관련 주요 재무지표 추이】

(단위: 억원, 배, %)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06)
총차입금	13,111	12,068	9,667	11,259	11,469
현금성자산	2,763	3,109	2,469	2,760	2,403
순차입금	10,348	8,960	7,199	8,499	9,370
순차입금/EBITDA	6.0	4.9	4.8	4.8	5.0
부채비율	406.3	329.1	275.1	260.8	259.8
차입금의존도	42.6	42.3	35.5	37.7	35.9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 향후 전망

견조한 수익창출능력 기반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세계 전선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무역분쟁 심화, 업계 내 높은 경쟁강도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심의 교체수요 및 개도국 중심의 신규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측면에서는 제품판가의 주 결정요소인 원재료 전기동 가격이 2018년 3분기 들어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 기조를 감안할 때 이전 대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망에 더하여 견고한 내수시장 지위, 우수한 기술력 및 다양한 제품포트폴리오, 초고압전력선 및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서의 꾸준한 프로젝트 레퍼런스 축적 및 판매비중 제고 추세,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생산효율성 및 판매안정성 등 자체 사업역량을 감안하면, 동사는 당분간 일정수준의 매출 성장을 시현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영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이후 신규 수주 및 수주잔고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평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이 2017년 이후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나, 견조한 수익창출능력을 감안하면 재무안정성 또한 큰 변동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요인

그룹계열사와의 수직계열화 구축은 신인도 긍정요인

동사는 관계사이자 국내 유일의 전기동 제련업체인 LS 니코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조달하여 전선 기초소재를 생산한 후, 자체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계열 동종업체 등에 공급하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선사업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생산효율성 및 판매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신인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계열 요인

계열지원의지 매우 높은 수준이나,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 미반영

동사는 LS 그룹내 주력 계열사로 계열내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그룹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사가 계열 내 최고 신인도를 보유한 기업들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지원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 유동성 분석

유동성 대응능력 매우 우수

2018년 6월말 연결기준 1조 1,773억원의 총차입금 중에서 단기성 차입금은 5,751억원(단기차입금 3,378억원, 유동성 장기부채 2,373억원)으로 4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기차입금 중 원재료 구매관련 유산스와 매출채권할인 등이 원활한 회전사용이 가능한 점과 2018년 6월말 기준 2,403억원의 현금성자산, 미사용 여신한도 규모(별도 기준 원화 1,198억원, 외화 1.6억달러), 충분한 유형자산 담보제공 여력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대응능력은 매우 우수하다.

또한 우수한 사업구조에 기반한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력과 소속 계열의 우수한 신인도 등을 통한 대체자금 조달능력 등은 동사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위: 억원,%)

구분	2018.06 잔액	연도별 만기도래 금액			
		2018	2019	2020	2021 이후
단기차입금	3,378	1,204	2,174	-	-
장기차입금	2,300	66	760	824	651
회사채	6,111	600	1,200	2,161	2,150
총차입금(B/S)	11,789	1,870	4,133	2,985	2,801
(비중)	100.0	15.9	35.1	25.3	23.8

주1: 연결기준

주2: 사채할인차금 등 조정항목 반영전 명목금액이고, 관리회계 기준으로 재무회계 기준과 소폭 차이

자료: 동사 제시

■ 전선산업 평가방법론 적용 결과

구분		AAA	AA	A	BBB	BB	B
사업 항목	매출액			○			
	시장지배력		○				
	원재료조달의 안정성		◎				
	제품다변화		○				
	지역다각화			○			
재무 항목	EBITDA 마진				○		
	순차입금/EBITDA				○		
	EBITDA/금융비용				○		
	차입금의존도				○		
	유동비율			○			
모델등급				○			
기타 평가요소		-		0		+	
외부지원가능성				0			

- 주) 1. ◎ 표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의미
 2. 외부지원가능성은 유사시 정부 또는 계열로부터의 지원을 의미

본 평가는 당사의 공시된 전선산업 평가방법론과 신용평가일반론, 계열신용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 www.rating.co.kr 의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예측정보 관련 유의사항>

본문 내 전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평가시점에 있어 당사의 합리적인 분석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예측정보이며, 이는 분석대상업체의 핵심지표 관련 당사의 전망에 기초한 영업손익 추경과 분석대상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지표의 변화 폭이 당초의 예상범위를 크게 이탈하고, 이러한 추세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반영한 Credit 검토를 토대로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는 수급요인이나 환율, 금리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포함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 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정보는 상기 <유의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제44조 제6항·제4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며, 평가의견의 일부입니다.

【장기 채무 신용등급 정의 및 회사채 부도율】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연간 부도율(%)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공식	광의	공식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0.00	0.00	0.00	0.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0.00	0.00	0.00	0.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0.00	0.00	0.34	1.27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0.00	0.00	1.67	5.56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0.00	0.00	8.89	12.26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0.00	6.67	15.16	17.55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0.00	0.00	14.85	26.48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00	NA	50.00	100.00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100.00	100.00	36.60	55.42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주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주3: 구조화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구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를 부기함.
 주4: 공식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의해 산정된 부도율임.
 주5: 광의 부도율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제9호에 의해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을 포함하여 산정한 부도율임.
 주6: 연간 부도율은 신용평가실적서의 직전년도 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하고,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은 평균누적부도율표의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함.
 주7: 연간 부도율은 2017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17년 기준임.

-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경영공시자료와 차입금현황 등 회사제시자료입니다.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8.08.03이고, 계약체결일은 2018.08.03이며, 평가종료일은 2018.08.24입니다.
- 최근 2년간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계약 건수 및 총액은 각각 6건, 154백만원(정기평가 포함)입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일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수수료 비중은 신용평가 수수료 총액의 0.7%에 해당합니다.
- 신용평가일 기준 2년 이내 비평가용역계약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요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비평가수수료 비중은 비평가 수수료 총액의 0%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평가일 현재 수행중인 비평가용역은 없습니다.

Copyright© 2018 :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599.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